

호주 4월 관광시장 동향조사

□ 호주 관광시장 주요 동향

○ 이스터 연휴와 가을방학이 겹치며 4월 초 여행 수요 집중

- NSW 기준 Good Friday(4.3), Easter Monday(4.6), 가을방학(4.7~4.17)이 연이어 배치되며 4월 초 국내 및 단거리 해외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됨. 특히 시드니 올림픽 파크에서 열린 '시드니 로열 이스터 쇼'는 12일간 호주 농업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의 정수를 선보이며 성황리에 개최됨. 올해는 야간 동물 조명 조각 전시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 기간 시드니와 브리즈번 등 주요 관문 도시의 호텔 점유율은 최고치를 기록함.
- 다만 ABC는 올해 이스터 기간 관광업계가 "혼조세"를 보였다고 전하며, 일부 지역은 수요가 견조했지만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가처분 소득 압박 그리고 고유가 부담으로 자가운 전 여행을 미루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고 보도함.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는 유지되었으나 1인당 소비액은 전년 대비 다소 신중해진 가치 중심적 소비 경향이 관찰됨.

○ 이스터 연휴에도 불구하고 방한 관광객 감소세 전망 (항공 공급망 위축)

- 이스터 연휴(4.3~4.6)와 가을방학(4.7~4.17)이 겹치며 여행 수요는 집중되었으나, 한국행 항공 공급량의 물리적 감소와 단순 경유객 증가로 인해 실제 방한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항공업계 공급 전략 변화 및 기재 변경에 따른 좌석난 심화
 - 최근 항공사들의 운항 계획 변경으로 인해 시드니-인천 노선의 가용 좌석이 크게 줄어들며 방한 관광 시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시아나항공 기재 변경: 4월 초부터 기존 대형 기종인 A380(약 500석)에서 B777(약 300석)로 기재를 변경하며 편당 공급석이 대폭 감소함.
 - 티웨이항공 운항 횟수 감축: 작년 4월 주 4회 운항하던 시드니-인천 노선을 올해 4월부터 주 3회로 감축 운영함에 따라 월간 약 2,000석 규모의 공급이 사라짐.

○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단순 경유객' 급증 및 방한 좌석 잠식

- 이란-이스라엘 갈등 심화로 인해 기존 중동을 경유하여 유럽을 가던 호주인들이 대거 한국 경유 노선으로 우회하며 방한 관광객용 좌석을 잠식하는 현상이 뚜렷함. 업계에 따르

면 전년 대비 한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가는 단순 경유객(Transfer)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동 전쟁발 유가, 항공 불확실성으로 '가치 중심' 소비 강화**

-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의 갈등 심화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면서 4월 호주 항공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음. 호주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대응 차원에서 3월 30일 유류세를 26.3센트/리터 인하했고, 4월 2일 추가 조치까지 반영해 총 32센트/리터 경감 방침을 발표함. 그럼에도 RBA 기준금리는 3월 17일 4.10%로 인상됐고, 2월 CPI도 3.7%를 기록해 여행 소비는 여전히 가격 민감도가 높은 상태이며, 4월 시장은 조기예약보다 특가 탐색, 단거리 이동, 취소·변경이 유연한 상품 선호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해석됨.

○ **대형 이벤트가 도시 관광과 지역 숙박 수요를 견인**

- 4월 8~13일 개최된 AFL Gather Round를 앞두고 남호주 호텔 예약은 전년 동기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CoStar 기준 행사 기간 1일 평균 예약 객실 수는 9,676실로 전년 같은 시점의 9,550실을 상회했고 평균 점유율도 84%에 달함. Tourism SA는 해당 행사가 학교 방학과 맞물려 수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전망해, 4월 호주 관광시장은 대형 스포츠·이벤트 중심의 도시관광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식료품점 관광(Grocery Tourism)'과 뷰티 투어의 확산**

- 공급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지 문화를 체험하려는 '식료품 관광(Grocery Tourism)'과 '글로우매드(Glowmads)' 트렌드는 호주 MZ세대 사이에서 여전히 breakout 트렌드로 급부상 중임. 소셜 미디어를 통한 한국 편의점(GS25) 및 마트 탐방, 전문 스킨케어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는 견조하여, 향후 항공 공급 회복 시 빠른 반등의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아시아 경쟁 목적지 강세 지속, 봄 시즌 K-POP 수요로 상대적 기회 확보**

- ATIA 2026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인의 미국행 수요는 연간 4.8% 감소한 반면, 베트남(+16.1%), 중국(+15.9%), 일본(+15.6%) 등 아시아 주요 목적지는 증가세를 보이며 여행 수요가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

남. 전체 해외여행은 연간 6.2% 증가해 수요 자체는 견조한 만큼, 한국도 아시아권 선호 확대의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은 호주인의 K-ETA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고 e-Arrival Card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서울 벚꽃은 4월 3일 개화·4월 10일 전후 만개가 예보됐고 BTS 월드 투어 고양 공연도 4월 9·11·12일 열려, 4월에는 일본·중국과 경쟁하는 아시아권 내에서 한국의 계절성·콘텐츠성 수요가 부각되는 흐름이 나타남.

출처:

<https://www.pm.gov.au/media/government-delivering-more-fuel-relief-through-deal-states>

<https://tourism.sa.gov.au/news-articles/2026-gather-round-driving-more-visitors>

<https://www.nma.gov.au/hallyu>

https://www.abc.net.au/news/2026-04-07/easter-tourism-fuel-impact/106537452?utm_campaign=abc_news_web&utm_content=link&utm_medium=content_shared&utm_source=abc_news_web

<https://www.ausleisure.com.au/news/atia-data-shows-australians-redirecting-travel-spend-away-from-usa-and-towards-asia>

<https://www.skyscanner.com.au/travel-trends/beauty>